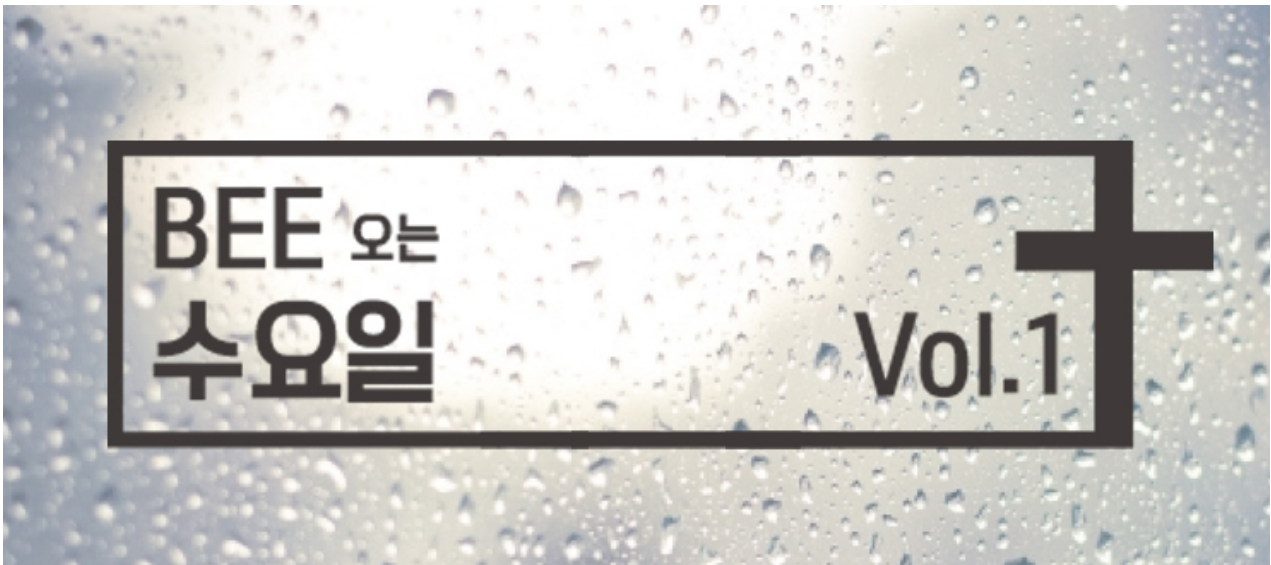




열한번째 이야기

A life

그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양쪽 눈꼬리가 처진 대다 뒷머리와 앞머리가 약간 헝클어진 모습이 '저는 사는 게 몹시 권태로와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하고 해맑은 송아지 같은 눈망울은 '저는 사는데 아무 욕심도 없구요'라고 써놓은 것 같았습니다. 좀 다크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사워하고 나오면, 세수했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이 분은 아주 뽀~얀 얼굴임에도 세수 했는지 여부가 무척이나 궁금하게 만드 는 분이었습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에 나가 싸울 무기를 굳이 챙겨들지 않고 맞서려는 분 같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를 이어가는 동안 그런 첫인상은 거의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슬펐던 순간을 물었을 때 말씀하시는 톤이 도레미파의 도에 해당했다면, 기뻐던 순간을 여쭈었을 때 대답하시는 톤도 같은 '도'로 일관했습니다. 높은 도와 낮은 도의 구별없이 그냥 세상 모든 질문에 다장조의 시작음인 '도' 하나로 밖에 답하실 수 없는 분 같았습니다. 조금 썬 질문을 억지로 찾아 던져본들, 탄탄한 돌을 태평양 한 가운데 던졌을 때 만큼의 파장도 느껴지지 않는 대답만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그런 평정심이 너무 놀라워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면, 잇몸 전부를 드러낸채 헤~하는 특유의 선한 웃음만 수줍게 웃어주셨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예, 'BEE 오는 수요일' 열한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사랑부 김종영 목사님이십니다. ^^

다소 불편할 수 있었지만, 그의 학력 얘기를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입니다. 특이한 점은 졸업은 한번이지만, 두 번 입학했었다는 겁니다. 처음 입학은 1981년. 두 번째는 1985년. 처음과 두 번째 사이에 '제적'이라는 기록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필시 무슨 곡절 깊은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의 답변입니다. 재수생이던 1980년. 당시 그의 꿈은 물리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꿈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판검사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학력고사 결과, 안 그래도 높던 점수가 더 높게 나왔고, 문이과 교차지원이 그해부터 가능했다는 것이 모두를 갈등하게 했습니다. 법대와 자연대를 동시에 지원했던 그는 최종 면접 당일, 서울대 정문을 통과해 좌측 법대와 우측 자연대로 향하는 갈림길에 이릅니다.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꿈을 향해 왼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입학 후, 법전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대신 눈에 들어온 것은 당구와 전자오락. 당구는 마세이(찍어 치기)를 연습하지 않아 250 수준에 머물렀지만, 당시 유행하던 전자오락 '겔로그'는 100원으로 2시간을 채우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락실 주인 아저씨가 제발 다른 데 가서 놀라고 돈을 내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법전을 멀리한 법대 생활 3년. 그는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당합니다.

1985년. 두 번째 서울법대 학번을 받아들입니다. 그때는 자신의 '건재함'을 입증하기 위해 법학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엔 당구도 전자오락도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대신 법전이 조금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얼추 고시를 쳐도 되겠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물질의 원리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세상의 규율을 논리로 구축해 가는 법의 세상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마음이었습니 다. 그는 마음의 소리를 따라, 소위 도를 닦는다는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의 도를 추구하는 데 몰입합니다. 딱히 이거다 무릎을 칠 만한 답을 얻지 못한 그는 어찌어찌 졸업장만 받아들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남들 보다 많은 나이였지만 취업에도 별 관심이 없던 그가 결국 직업으로 첫발을 내딛게 된 곳은 여의도의 한 증권사 였습니다. 돈에 관심이 많았던 것도 아니지만, 당시엔 나이 많은 그에게 그곳 밖에 열린 문이 없었기에 찾아간 것 입니다. 거기서 맡은 일은 주식이 아니라 가장 위험성이 높다는, 그래서 수익성도 그만큼 높은, 선물과 옵션 담 당이었습니다. 오전에 몇 천만원이던 돈이 저녁이면 몇 억이 되는 것을 목격하며 그는 초단위 승부가 벌어지는 자 본의 최전선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결과'를 안고 증권가를 떠나게 됩니다. 이곳에 몸담았던 다른 많은 사람들 처럼, 엄청난 빚더미를 떠안은 채.



사실 그는 모태신앙으로 믿음을 키우던 유년시절을 보냈습니 다. 그러다 대학 입학 후 하나님을 떠난 광야의 시간이 시작됐습 니다. 뜻하지 않은 파고를 넘어서야 했던 그는 남들에게 우와~ 하는 경탄의 느낌도 주었고, 에구~ 하는 안타까움도 전해줬습 니다. 정작 그는 그런 우와~와 에구~가 등장하는 드라마 속 주 인공을 꿈꾼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어머님께 효도 하고 싶은 아들이었을 뿐이었고, 세상에서 밥벌이하는 건강한 가장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효도는 어쩌다 보니 서울 법대였고, 그의 밥벌이는 하필 선물과 옵션이었을 뿐이었습니 다. 남들에게 스스로 잘났다 내세우는 성향도 아니었고, 돈에 관

심 많고 셈이 빠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원지 궁금해 하고, 하늘의 별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 하던 참

소박하고 수수한 모범생의 삶은, 그러나 주변의 엄청난 기대와 세월의 파동 속에 계속 치이는 현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온누리교회 사랑부와의 인연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증권사 때 진 빚 갚느라 과외 열심히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익혀 교회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던 아들을 따라 멈춰선 곳이 사랑부 예배를 보는 장소 앞이었죠. 그곳에서 아는 집사님을 우연히 만나 사랑부 자원봉사를 제안 받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랑부와 인연이 이어진 것이니, 저의 진로는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통해 안내해 주신 겁니다. 허허...”

무표정하게 답변을 이어가던 목사님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처음으로 느껴진 것은 아내를 처음 만났던 시간을 이야기 할 때였습니다. 목사님 서른일곱, 사모님 서른여섯. 노총각 노처녀가 증권사 친구를 통해 만나서 서로 많이 닮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난 지 7개월 만에 결혼!) 두 사람 모두 청국장을 좋아했고, 담백하고 튀지 않는 패션을 선호했습니다. 고상하고 심플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같았고, 무엇보다 아내의 전공이 수학인 것도 한 몫했습니다. 결혼 이후 난곡의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큼지막한 자동차들이 빼곡이 들어찬 아파트 주차장에 유일하게 티코를 주차하며 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줄 아는 아내가 있었고, 새벽기도와 금식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말씀이 있어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갈급함이 사라졌다 느낄 때 마다 금식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향한 첫 마음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끝으로 “왜 사랑부 목사님이시냐”고 여쭙었습니다. “사랑부에선 뭐하던 사람이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고 묻지 않거든요. 허허. 이 친구들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아요. 사람을 그 중심으로 느낄 줄 알고요.” 온누리교회 사랑부 파트 목사님, 이라는 직함이 그것에 가장 어울리는 주인을 만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글: 최승호, 사진: 조정문, 편집: 최지영)



김종영 목사님은...

1961년 서울생. 햇불트리니티 신대원 졸. 2015년 목사 안수. 수학교사인 아내 한혜정 사모와 사이에 고2 현수(17)군을 두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설악산과 북한산을 종주하는 등산 매니아입니다. 제일 행복한 일과 중 하나는 사랑부 친구들을 위해 설교를 준비하며 다양한 이미지 자료를 찾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가 모토입니다. BEE와의 인연은 2001년 겨울 갈라디아서 들은 후 2008년 1월부터 다시 나눔. 현재 목요 저녁반 그생 인도 중입니다.

BEE 소식

7월 9일 오전 6시30분 한동홀에서 All & One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